

이 땅에 빛을... '광주가톨릭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 천주교 교구 지역박물관 광주대교구 상설전...로마주화 등 성물·유물 김희중 대주교 "가톨릭 진리 탐구 장 기대"

성경에 나오는 '렘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통용하던 주화의 최소 단위다. 1렘톤은 로마 화폐 콰드란스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가치로 환산하면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에 달한다. 아주 액수가 작은 돈이다.

그러나 성경 속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마저 바쳤다. 예수님은 이를 하느님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겼다. 가난한 과부가 봉헌한 렘톤 두 닢은 어떤 이가 봉헌한 것보다 많은 것이니 틀림없다.

전시장 안으로 보이는 렘톤은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자세히 볼 수 없다. 동그란 형태라기보다 타원형에 가깝다. 얼핏 보기에도 보잘 것 없는 모양이다. 가치로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그러나 성경 속 과부에게 그 돈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작은 돈이지만 기꺼이 봉헌했던 과부의 믿음과 신앙은 오늘의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와 가치의 의미를 묻는다.

국내 최초 천주교 교구 지역박물관인 광주가톨릭박물관(박물관)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열고 상설전 '이 땅에 빛을' 개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시장에서는 '로마 미사 경본'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대교구 활동상 등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당초 박물관은 지난 2020년 완공을 마치고 축성식을 가졌다. 이후 박물관 요건을 갖추기 위해 2년여의 준비를 했고 이번에 광주대교구청 안에 정식 개관을 하게 된 것. 박물관은 광주대교구 역사적 발자취를 담아낼 뿐 아니라 광주의 민주화 역사도 기억하자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번 상설전은 그동안 광주대교구에서 수집한 성물과 유물, 신자들이 기증한 유물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전시다.

전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1부 '복음의 기쁨'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 '쿰란 토기'와 18세기 '그레고리오 성가집', '로마 주화'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1950년대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와 수녀회 소속 사제와 수도자들이 사용한 가방이 눈에 띈다. 당시 수녀들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와 수녀회 소속 사제와 수도자들이 사용한 가방(위)과 중국 고대 향로를 본따 만든 백옥 향로.

가방에는 본인의 물건이 아닌 의약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6·25 직후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가방은 당시 수녀들의 거룩한 봉사과 희생 정신을 상징한다.

2부 '자비의 얼굴'에서는 신자들이 기증한 예술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됐다. 특히 광주대교구청 앞뜰에 있는 '비움의 십자가'를 조각한 이춘만 작가의 '초기 설정 개요도'와 '개념도'가 눈에 띈다.

광주대교구의 설립 역사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도 마

련돼 있다. 3부 '신앙의 빛'은 광주대교구 역사 외에도 1984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입었던 제의를 직접 만들었던 김희중 작가의 복제본을 선보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성인 시성식 집전이 목적이었지만, 방한 다음 날 바로 광주를 방문해 80년 5월의 아픔과 상흔을 위로했다.

4부 '모든 형제들'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제들의 활동상 외에도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에 있었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과 세상을 향하는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의 역할을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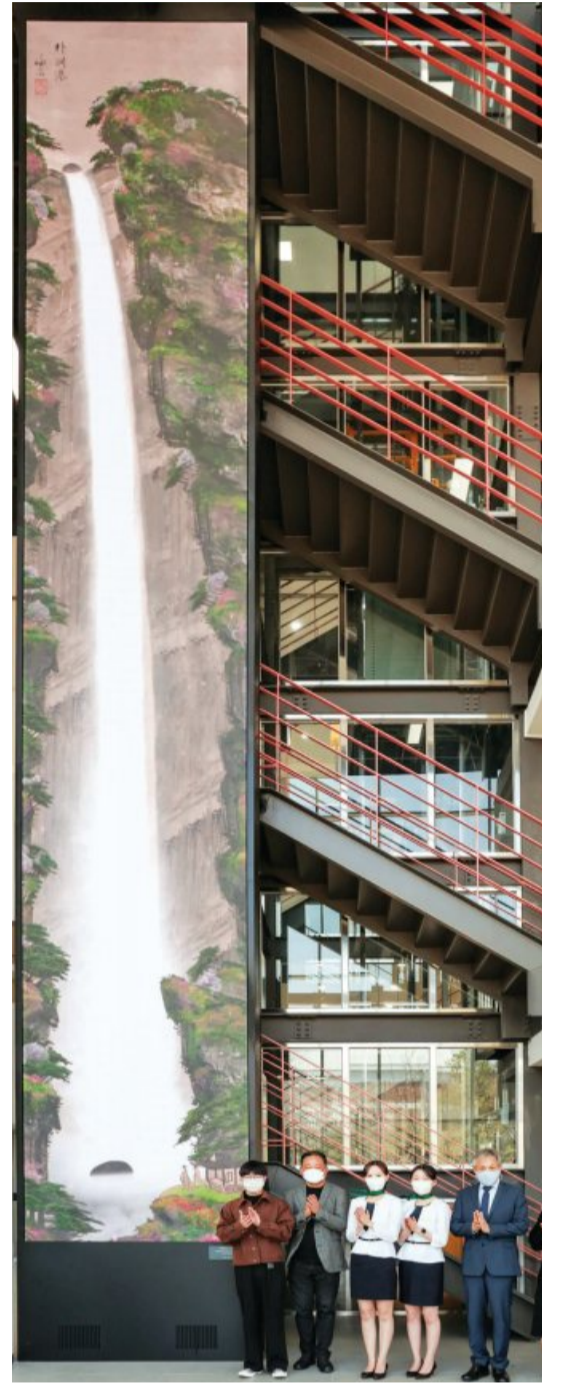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1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19일 광주대교구청에서 열린 박물관 개관식에는 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주례를 했으며 육현진 총대리주교, 전임 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와 최장무 대주교,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송갑석·강은미·양향자 국회의원, 서대석 서구청장, 유물 기증자들이 참석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박물관이 하느님의 선과 예지를 원천으로 유물을 통해 가톨릭 문화를 창달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에 흐르는 '지식의 폭포'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가로1.7m×세로10m 작품 전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초대형 디지털 작품이 전남대에 전시됐다.

전남대 정보마루에서 가로 1.7m, 세로 10m크기의 대형 LED모니터에 폭포를 소재로 한 이이남 작가의 디지털 작품 '지식의 폭포'를 구현해 개막했다.

'지식의 폭포'는 우리나라 고전회화의 대표적 소재인 폭포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디지털로 재해석해 시각화한 작품이다.

배경이 되는 박연폭포는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의 작품이다. 길이가 무려 건물 4층 높이에 달할 정도로 폭포의 장엄함이 느껴지고, 4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날 작품 개막식에는 이이남 작가를 비롯해 정성택 전남대 총장과 보직교수, 학생 등이 참석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성평등정책 포럼'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재단 204호 강의실에서 제1차 전남 성평등정책 포럼 '#이여자#이남자#꿈꾸다#외치다#나누다'를 개최한다.

'전남 지역 20대 청년이 말하는 성평등과 생애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20대 남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포럼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며, 좌장은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조은정 교수가 맡는다.

청년정책을 활용, 주거 독립을 실현한 권아은씨는 '하은스럽게'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신안군에 귀어한 김동진씨는 '봄이 오면 귀향하는 송어처럼', 사회적기업 (주)미항주거복지센터 박규호 과장은 '분기점, 분수령, 전환점'에 대해 들려준다. (주)지혜와 비전 경영기획팀 서명원 선임연구원의 '전남 성평등에 대한 나의 고찰', 블로그 '집 나가는 여자들' 운영자 송도현의 '미투에서 탈집까지', 순천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유혜린의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드러내는 시기'도 마련된다.

이여자는 토론에서는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이 2021년 전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전남 20대의 성평등 인식과 실천 양태를 논의한다. 문의 061-260-732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금란 개인전, 풍요로운 자연이 주는 따뜻함

30일까지 LH 휴랑갤러리

25일까지 화순 소소미술관

'자연으로의 초대.' 서양화가 김금란 작가가 두 곳의 갤러리에서 동시에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광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휴랑 갤러리(30일까지·서구 시청로 91)와 화순 소소미술관(25일까지·도곡면 지강로 467-1)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힘든 시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여인상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의 작품은 화면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색채와 생동감이 인상적이다. 화사한 꽃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그림은 편안함을 전하며 여인과 꽃을 함께 담은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작품 '고즈넉'은 초록빛 숲과 하얀 말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따스함' 시리즈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문과 다채로운 꽃, 나무가 만나 따스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김 작가는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등에서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



'고즈넉 III'

을 열었으며 제주국제미술관 개관기념 초대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사생회, 수미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올해 열린 대한민국회화대상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인 교류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단 큐브미술관 ·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2022. 3. 17(목) 11:00 장소 | 성남문화재단 뮤즈홀



이강하미술관·성남문화재단 협약 문화 예술 발전·예술가 교류 지원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은 지난해 5월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과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두 지역 작가 6명이 참여한 첫 교류전이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에서 열렸고, 올 하반기에는 이강하미술관에서 성남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강하미술관과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이 새로운 도시의 교류와 연결이라는 주제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가 교류 전시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으로 체결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류성근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과 이강하미술관 이선 학예실장이 참여했다.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오는 2023년까지 전시 공동기획 및 추진, 홍보 등을 함께하고 특히 성남큐브미술관에 새롭게 조성된 상설전시장을 활용에 교류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거리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과 연결된 삶과 예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공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강하미술관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을 초청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강하미술관은 2020년과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전국 국립미술관 협력망 사업 '국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지원'에 최종 선정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구재항



니원진



조혜원



최연주

피아노 콰르텟 '여덟 개의 손으로 그리는 음악'

'여덟 개의 손으로 들려주는 피아노 음악.' 피아노 콰르텟의 '여덟 손으로 그리는 음악'이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송어 오중주' 스페타나 '두 대의 피아노, 8개의 손을 위한 소나타',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구노 '왈츠' 등을 들려준다. 600여곡의 가곡을 작곡해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는 '송어'라는 제목의 곡으로 친숙하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으로 두대의 피아노에서 네 명의 연주자가 여덟 손으로 연주하도록 편곡해 들려준다. 스페타나의 '두대의 피아노 여덟 손을 위한 소나타'는 강하고 리

드미컬한 음악이 특징이며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은 그가 1910년에 완성한 발레곡 '불새'를 연주회용으로 만든 작품이다. 다섯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고르 왕자가 불새의 도움으로 마법에서 풀려나기까지의 과정 중 제3번 '카스테이 왕의 지옥의 춤', 제4번 '자장가', 제5번 '피날레'를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구노 오페라 중 가장 유명한 '파우스트'의 제2막에 나오는 왈츠로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독주로 사랑받고 있다.

무대에는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교수 구재항, 호남신학대와 광주 예고에 출강중인 니원진, 호남신학대 객원교수 조혜원·최연주 등이 오른다. 전석 초대.문의 010-7187-0908. /전은재 기자 ej6621@